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9. 12. 17. / (총 6매)	담당부서	공공보육팀
팀 장	백 경 순	전 화	044-202-3552
담 당 자	김 정 열		044-202-3545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 수기 공모전’ 우수작 시상

- 총 339편 응모, 15편 수상작 시상 (12.17) -

□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느꼈던 학부모의 소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원장의 보람을 담은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15편이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보육진흥원장상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원업무 등 수행 (2009년 설립, 2019년 법정기관화).

○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접수된 총 339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 6편, 한국보육진흥원장상 9편이 12월 6일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학부모, 교사, 원장 부문(3개)으로 나누어 실시된 수기 공모전 장관상 수상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 부문에서는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며 느낀 소감을 담은 “어서와 국공립어린이집은 처음이지?”와, △세 자매를 키우는 취업모의 진솔한 경험담을 적은 “나의 희망! 우리 아이들의 새희망!!”이 선정되었다.
- 교사 부문은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고의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을 적은 “못말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당”과, △우리 어린이집만의 자랑거리를 재치있게 표현한 “온천보라어린이집 사용 설명서 :)”가 선정되었다.
- 원장 부문은 △아이와 부모의 지원자, 교직원의 협력자로서 자신의 각오를 담은 “미래 인재의 희망이 자라는 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본 “늦가을 어린이집 일상 소회”가 수상하였다.
-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www.kcpi.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와 보육 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또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수기 공모전 장관상 수상작 현황 및 요약
2. 수기 공모전 경과 및 시상식 개요

붙임1

수기 공모전 장관상 수상작 현황 및 요약

< 학부모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어서와 국공립어린이집은 처음이지?”, 강현정

2014년 3월, 우리 딸을 낳은 뒤 곧바로 휴직을 했고 동네를 오고 가다 산곡3동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딸도 저 곳에 다니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2019년 3월, 드디어 우리 딸의 산곡3동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매우 만족스럽다. 원내 텃밭활동, 전문 강사와의 숲 체험, 반디 도서관 연계 체험 활동, 치즈스쿨 체험, 각종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둘째, 열린 어린이집이라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부모,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고 공지사항을 통해 각종 부모 교육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셋째, 국공립이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어른도 뛰어놀고 싶을 만큼 예쁘게 정비된 옥상 놀이터,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각종 지원강사 파견 등은 ‘내가 낸 세금이 유익하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넷째, 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이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점이 맞벌이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아침 일찍 등원시키고 저녁에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행히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잘 봐주셔서 안심하고 직장 생활에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아이는 내년에 7세가 되어 산곡3동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게 된다. 우리 아이가 내년에도 이 산곡3동 어린이집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학부모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나의 희망! 우리아이들의 새희망!!”, 정혜영

나는 직장을 다니며 3자매를 키우는 워킹 맘이다. 새희망어린이집과 내가 친구가 된지는 벌써 6년째.. 맞벌이 부부가 주변의 도움 없이 3명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녹록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지 않았다면 셋째를 임신했을 때 직장을 더 다녀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가끔, 아찔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지방에서 정신없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고, 녹초가 되어 버린 나의 몸을 버스 의자에 던지듯 잠이 들었다. 오후 4시에 출발한 버스는 느릿느릿 거북이걸음을 하더니 결국 7시가 넘어서 터미널에 도착했다. 겨우 도착해서 숨도 돌릴 틈 없이 선생님께 몇 번이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숨 좀 고르세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 죄송해하니까 제가 몸 돌바를 모르겠어요.’라며 되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안심이 되며 참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난다.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 맘들은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보육과 육아를 고군분투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3자매는 국공립의 최대 수혜자’라고, 나라에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주 잘 크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금도 품어주는 새희망어린이집. 나에게만 워킹맘의 꿈을 실현하게 도와준 희망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유아시절이 멋진 추억이 될 새희망어린이집에 감사하다.

< 교사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못말리는 ‘국공립어린이집 신당’”, 정미경

이제 겨우 2019년 11월 1일자로 국공립이 된 새내기 신당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은 원래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이었다. 우리 어린이집은 재정이 투명하고, 기타경비도 최소한으로 책정되며, 가장 좋은 식자재를 이용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린이집이었다. 하지만 열악하고 불품없다는 편견 때문에 늘 정원미달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있었다.

국공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우리 어린이집은 드디어 국공립다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설계사님과 함께 어린이집 내 교실장과 비품장 등을 직접 설계하며 줄자는 항상 내 앞치마 앞주머니에 있었고, 예쁜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 찾아본 블로그 수는 300개가 넘었지만, 돌봄이 필요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믿고 올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한 달이 훌쩍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첫발을 디딜 때 아이들의 탄성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와~! 우리 어린이집이에요?”, “주임 선생님 말처럼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네요.” 현관입구에 국공립 신당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날부터 ‘다문화 아이들’, ‘맛벌이 0세 영아’ 등 원아상담으로 요즘은 바쁘기만 하다.

리모델링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과 함께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웃음만으로 인사하고 후다닥 출근하시는 ㅎㅎ이 어머니를 위해 친구들 몰래 세수도 해주고 베이비 로션도 발라주고, 새로 가게 운영을 시작하신 ♡♡이 어머니가 바쁘셔서 못 챙겨주신 간식을 위해 바나나를 사오고, 외할머니가 업어야만 집으로 가는 ♡♡이를 매일 할머니 등에 업히며, 최고의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1년이 지난 11월 1일도, 10년이 지난 11월 1일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길 다짐해 본다.

< 교사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온천보라어린이집 사용 설명서 :)”, 김가람

[열심히 일한자여, 떠나거라] 보육현장에서는 교사의 휴가를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천보라어린이집은 아니다. 보조 선생님들과 공익요원, 기간 대체 선생님이 배정되어 교사가 휴가를 가더라도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며, 오전 반차, 오후 반차, 탄력근무 등을 통해 교사가 마음놓고 휴가를 다녀오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마음껏 사거라, 먹거라, 하거라] 교사가 수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교구 등을 구매할 때 원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아이들과 교사의 마음과 수업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에 빠른 속도로 밥을 먹고 아이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허기진 교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은 ‘원장님’이다. 먹고 싶은 것을 던지시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히든카드’가 등장한다. 듣고 싶은 교육이나 연수 또한 적극적으로 보내주신다. 그렇게 하여 교사들은 집단 심리 상담을 받았고 1박 2일 연수 등을 다녀와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원장님이 있어 온천보라어린이집 교사들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온천보라어린이집은 다르다 자부할 수 있다. 두텁고 오래된 인연으로 온천보라를 선택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과 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어린이집을 오는 아이들, 항상 아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교사들, 이 모든 걸 지지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원장님까지 모두 모여있기에 온천보라어린이집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 원장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미래 인재의 희망이 자라는 곳”, 남옥희

부모님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떤 점이 좋으시기에 입소확정이 되었다는 말에 가족 모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셨는지 궁금하여 여쭙어 보았습니다.

1. 원장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원장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지자체에서 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다 보니 원장의 질과 전문성이 보장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감사와 관리감독으로 인한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다.

2. 만 0~5세반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고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에 대한 비용도 적으며, 지금은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 어린이집마다 교육과정수준이 높아졌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만든 식단표를 제공받으므로 안심이다.

3. 부모들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 아이도 외롭지 않게 친구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안심된다.

저는 이렇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원아에게는 질 좋은 교육과 풍성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며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자로서, 부모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경제적인 활동에 안심되는 도움을 드리는 가족 지지자로서, 교직원에게 재교육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교육방향과 목적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는 어린이집을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원장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

“늦가을 어린이집 일상 소회”, 정윤경

교육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나의 꿈이자 목표였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날은 없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의 하루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등원을 하여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지만 이내 교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폭 안긴다. 어머님도 안심하며 출근을 하신다. 9시가 되어 본격적으로 등원이 시작되고 각 반으로 아이들이 모여든다.

점심시간이 되어 유아반 아이들은 점심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방금전까지 그렇게 신나서 웃던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아기새처럼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잘 먹겠습니다!” 큰소리로 인사하고 먹는다.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신경쓰는 일 중 하나다. 성장기인 영유아들에게 급식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영양소는 골고루 충분한지를 다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따기 후 반별로 낮잠에 든다. 오후 2시쯤 한 학부모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다. 최근 어린이집 지원체계가 바뀌고 있다보니 이런 문의가 많다. 오후 4시반~5시부터 하원이 시작되었다. 하루분만큼 아이들을 성장시켜 다시 부모님께 돌려보내는 뿌듯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오후 통합반은 통합반 교사가 아이들이 지루할 틈 없이 돌봐주기 때문에 늦으시는 부모님을 즐겁게 놀이하면서 기다린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늘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변화의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 어린이집은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보육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일상은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가치 있었음을 느끼게 할 것이다.

붙임2

수기 공모전 경과 및 시상식 개요

□ 수기 공모전 경과

- 공모 기간 : '19. 11. 11.(월) ~ 22.(금)
- 공모 방법 : 한국보육진흥원 전자메일(gongmo@kcpi.or.kr) 접수
- 공모 대상 및 세부내용

대 상	세 부 내 용
학부모	-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육아부담 해소, 경력단절 극복 및 재취업하게 된 사례 -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 만족 사례 등
교사	-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 에피소드를 담은 사례
원장	- 내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의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점, 우수한 점 등

- 응모 현황 : 총 339편(학부모 97편, 교사 153편, 원장 89편)
- 심사 방법 :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5편 선정(장관상 6편, 원장상 9편)
* 심사기준 : 수기 공모 취지와 부합성, 내용의 차별성 및 진실성, 작품의 표현력 및 완성도, 사후 홍보 활용도 등
- 수상작 발표 : '19. 12. 6.(금) * 개별통보 및 지방자치단체로 안내

□ 시상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12. 17.(화) 14:00~15:00, 한국보육진흥원
- 참석 대상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 한국보육진흥원 공공사업단장, 수기 공모전 수상자(15명)
- 시상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상(6편) : 보건복지부장관 상장 및 상금 30만 원
 - 한국보육진흥원장상(9편) : 한국보육진흥원장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인사	
14:05~14:20 (15')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 수기 공모전 수상작 시상	부문별 각 5명 총 15명 시상
14:20~14:50 (30')	수상자 수상소감 및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청취	
14:50~15:00 (10')	단체 사진촬영 및 마무리	